



Photo | 교혜은 집사(기쁨-19)

매일묵상
2022. 5월호

발행인 | 조재호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신앙운동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월

그라티아
갤러리



[요정들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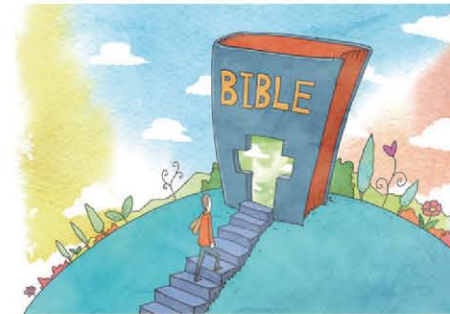
최 미정 작가

개인전 8회, 초대전 및 그룹전 100회 이상 다수 전시
현) 한국미협서양분과위원, 한국여성작가협회운영위원

어렸을 적, 꽃을 바라볼 때마다 요정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꽃을 피우기 위해 요정들이 물을 뿌려주고, 지켜봐 줬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꽃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짙어지면서 요정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지만,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는 화병의 꽃을 보다가 캔버스 위에 요정을 불러냈다. 이젠 바로 “요정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닐까!

* 5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최미정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5·6월 달력	04
5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골로새서 해설	10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24, 44, 58, 72
데살로니가전후서 해설	16
야고보서 해설	26
베드로전후서 해설	32
사사기 해설	40
룻기 해설	74
이 달의 신앙도서 「서자선 집사의 일기: 록」	80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최지현 집사 (섬김-24)	82
삶 속에 녹아든 예배이야기 한채린 집사(기쁨-15)	84
-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 소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디아코니아(4) 방송전산부-새물결팀	87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일본' 강장식, 이문경 파송선교사	89
교회소식	91
예배안내	
부록	
- 기도온 햇불 향아리 만들기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최미정 작가의 [요정들의 선물]

기도를 배우다

주님의 은혜

초연한 마음을 주소서

이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도록 저를 이끄소서.
무엇을 산다면
그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매순간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김영봉 엮음, [사림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190.



존 베일리(John Baillie)
(1886-1960,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20세기 중반 바르트, 브루너, 니버, 불트만, 틸리히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학자이자 목사, 설교가이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신학과 정을 마친 뒤 미국 뉴욕의 오번신학교, 캐나다 임마

누엘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34년에 모교인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조직신학을 가르쳤다. 조직신학 교수였으나 하나님을 단순히 사색적으로만 생각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학문과 경건 생활이 자리하고 있었던, 신앙과 이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경건의 사람이었다.

5

2022

가정의 달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시 118: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2 •월삭새벽기도회	3	4	5 •어린이날 •입하	6	7
8 •어버이주일 •남선교회헌신예배	9	10	11	12	13	14
15 •교사주일11-16 •희망의 복지재단 헌신예배	16	17	18	19	20	21 •소만
22	23	24	25	26	27	28
29 •정년주일 •성년축복식 및 정년공동체 헌신예배	30	31				

TO DO LIST

☐	☐
☐	☐
☐	☐
☐	☐
☐	☐

6

2022

애국의 달

나라는 여호와와
여호와와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시 22:2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월삭새벽기도회, •지방선거	2 •꿈샘문화교실 어름학기 개강	3 •단오	4
5 •성령강림절	6 •망종 •현충일	7	8	9	10	11
12 •삼위일체주일	13	14	15	16 •전도학교 개강	17	18
19 •제20차 천사운동	20	21 •하지	22	23	24 •M-12 마을장 리더 펠피 수련회	25
26	27	28	29	30	31	

TO DO LIST

☐	☐
☐	☐
☐	☐
☐	☐
☐	☐

5월 [오늘의 말씀]

1일	주 일	16일	사사기 2-3장
2일	빌립보서 3-4장	17일	사사기 4-5장
3일	골로새서 1-2장	18일	사사기 6장
4일	골로새서 3-4장	19일	사사기 7-8장
5일	데살로니가전서 1-3장	20일	사사기 9장
6일	데살로니가전서 4-5장	21일	사사기 10-11장
7일	데살로니가후서 1-3장	22일	주 일
8일	주 일	23일	사사기 12-13장
9일	야고보서 1-2장	24일	사사기 14-15장
10일	야고보서 3-5장	25일	사사기 16장
11일	베드로전서 1-2장	26일	사사기 17-18장
12일	베드로전서 3-5장	27일	사사기 19장
13일	베드로후서 1-3장	28일	사사기 20-21장
14일	사사기 1장	29일	주 일
15일	주 일	30일	룻기 1-2장
		31일	룻기 3-4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3장
*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4장

오늘의 말씀 | 빌 3-4장

3장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독려하며 몸을 상해하며 할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행악 자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만일 누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려 한다면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자랑할만하다며,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파 율법학자 출신인 자신의 이력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害)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어찌 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잡으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묵상할 본문 | 빌 4:8-23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칭찬할 만하고 덕을 세우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스스로 어떠한 형평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풍부하든 비천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을지를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 주님과과의 사귄데 방해물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고백해 봅시다.

*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 내 인생에서 풍부할 때와 비천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배운 신앙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주안에서 늘 기뻐하며 천국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2. 소년부 교역자와 교사가 하나되게 하시고 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3. 가정의 달 이 땅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소서.

1. 골로새서의 저자와 수신자

골로새서는 편지 서두에 저자가 바울 자신이라고 밝힙니다(1:1). 편지 제목은 바울이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음을 알려 줍니다.

2. 골로새서의 기록 배경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주후 52-55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고(행19:10),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1:7).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고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위험한 가르침이 침투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받았을 것입니다(4:12).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3. 골로새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

바울은 주후 62년경 로마(행28장)에서 골로새서를 썼을 것입니다.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으며 바울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를 쓴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 편지는 모두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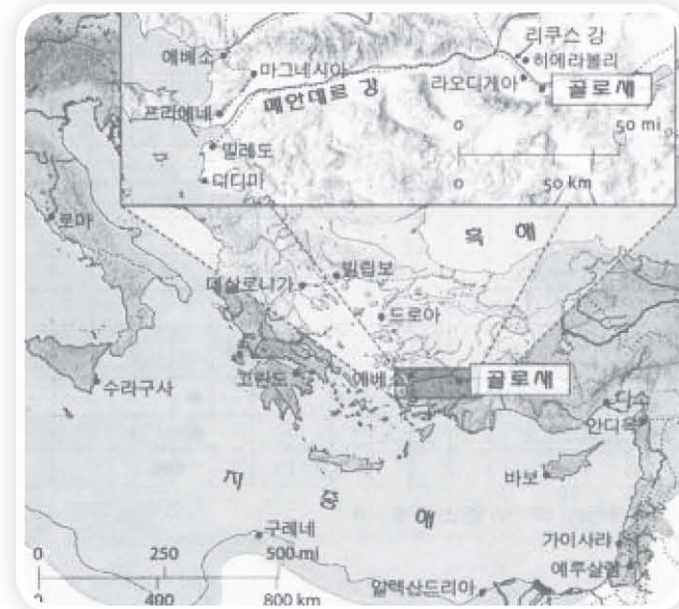
4. 골로새서의 주제

- 1)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며 모든 인간 통치자와 우주적 세력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1:15-20, 2:9-10, 3:1).
-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속과 화해를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다(1:13-14, 20-22).
- 3)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새 생명과 충만함에 동참한다(2:9-14, 3:1-4).
- 4)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동참한다(2:10, 15).
- 5)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대의 성취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남긴 유산을 공유한다(1:12, 21-22, 27).
- 6) 신자들은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1:10-12, 28, 3:1-4:6).

5. 골로새서 개요

- 1) 바울의 인사말 (1:1-2)
- 2) 감사 (1:3-8)
- 3) 기도 (1:9-14)
- 4)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 (1:15-20)
- 5) 골로새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화해 (1:21-23)
- 6)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수고 (1:24-2:3)
- 7) 골로새에서의 위험한 가르침 (2:4-23)
- 8) 올바른 초점: 그리스도와 위에 속한 생명 (3:1-4)
- 9)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3:5-4:6)
- 10) 개인적인 인사와 교훈 (4:7-17)
- 11) 편지의 맺음말 (4:18)

6. 골로새 지역 지도



믿음에 굳게 서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6장
*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2장

오늘의 말씀 | 골 1-2장

1장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위로를 받아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연합하여 풍성하고도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묵상할 본문 | 골 2:8-15

바울은 혹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하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적인 문서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셨고, 또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로 죽을 수 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해방된 기쁨을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속임수들(영지주의, 점성술, 천사송배, 할례와 같은 율법주의)처럼 나의 신앙에 침투한 헛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운세와 점을 보거나 율법주의와 미신에 빠진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죄의 범조문에서 옳아 매여 사탄의 통치아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며, 내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죄와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묵상하고 확신하게 하소서.
2. 중등부 학생들이 복음을 바로 알아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3. 20대 대통령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게 하고(5월10일부터 임기시작) 한달 남은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시행, 시도 지사, 시군구 청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교육감 선출)도 주관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5장
*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4장

오늘의 말씀 | 골 3-4장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며,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낼 것이니 그들로부터 바울의 형편에 대한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묵상할 본문 | 골 3:18-4:1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며,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성실함으로 하라고 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상전들은 하늘에 자기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명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신을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일상에서 어떤 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니까? 최근 죄로 인해 드러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적어봅시다. 완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루어주실 것을 구합니다.

* 내가 사회생활을 주께 하듯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직장(사업체)의 사람들, 모임과 소그룹 사람들, 지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길지 적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매사에 주님께 하듯 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고등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꿈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3. 이 땅의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계 각 영역속에서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며 섬기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후서 해설

1. 데살로니가전후서의 저자와 수신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공동 발신자로 언급됩니다(1:1).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의 팀으로 소개하며, 디모데가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가져옵니다.

2. 데살로니가전후서의 기록 배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이 교회는 디모데를 통해서 대체로 잘 지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부 지체들이 죽었고(4:13)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교인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3:10, 4:13),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4:13).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급변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살후3:11) 후서를 씁니다. 그 상황은 교인 중에 어떤 일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2:1-2)는 이상한 주장을 받아들여 종말에 대해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2:2). 더 나아가 공동체 내에 일하기 거부하는 게으른 자들로 문제를 겪었습니다(3:6-15). 이런 문제들에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생각에 놀란 이들을 안심시키고(2:1-3:5), 끊임없는 박해에 직면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우며(1:3-12),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 지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3. 데살로니가전후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

바울은 2차 전도여행(행18장) 기간 중에 고린도에 18개월간 머물 때인 주후 49-51년경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바울서신중 가장 빠른 시기 쓴 서신입니다.

4. 데살로니가전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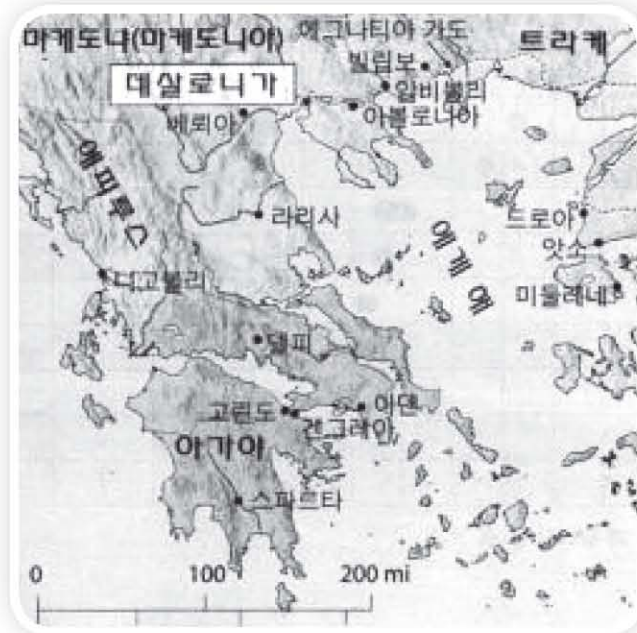
- 1) 바울의 인사말 (1:1)
- 2) 감사와 격려 (1:2-3:13)
 - A.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1:2-3)
 - B.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택함 받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1:4-2:16)
 - C. 부재한 선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변호 (2:7-3:10)
 - D.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목회적인 기도 (3:11-13)

- 3) 교훈과 권면 (4:1-5:28)
 - A.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대하여 (4:1-12)
 - B.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4:13-5:11)
 - C. 공동체의 행동에 대하여 (5:12-22)
 - D. 기도와 확신, 맺음말 (5:23-28)

5. 데살로니가후서 개요

- 1) 바울의 인사말 (1:1-2)
- 2)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1:3-12)
- 3) 주의 날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반박함 (2:1-17)
- 4) 기도 요청(3:1-5)
- 5) 게으른 자들의 문제 (3:6-15)
- 6) 맺음말 (3:16-18)

6. 데살로니가 지역 지도



칭찬받은 데살로니가교회처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5장

*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3장

오늘의 말씀 | 살전 1-3장

1장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살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소문이 날 정도가 된 것을 크게 칭찬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그가 처음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겪었는지를 회고합니다. 이런 고난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바울의 일행과 동일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은 유대인들은 이처럼 죄와 진노를 채워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지 못해 가슴을 졸이던 바울은 참다못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디모데가 그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이 풍성하며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살전 2:13

이 성경구절은 규장출판사 여운학 장로님이 쓰신 이슬비전도학교 1권에 있는 암송구절입니다. 장로님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인 바울사도의 훌륭한 말씀을 기대하며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사모했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에, 이 성경구절을 예배때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역사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암송구절로 정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사모하며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바울사도는 왜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살전1:3) 표현 했을까요? 특히 사랑이 수고라면,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떠한 수고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 주를 본받아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살전1:6-7)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를 본받아 믿는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 일년 52주 주일예배와 모든 공예배 설교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주를 본받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2. 청년공동체를 위해 세워주신 세분의 교역자와 리더십들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도록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고적의 청년들이 신앙의 반석아래 인생을 계획할 때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3.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중독과 향락과 퇴폐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건강한 꿈을 펼치며 도전하는 나라되게 하소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생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95장
*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5장

오늘의 말씀 | 살전 4-5장

4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음란과 색욕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각자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단정히 행하라 명합니다. 장차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뒤이어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 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5장에서 주의 날은 밤에 도적 같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기에 성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깨어 근신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되, 특히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명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연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좇으라 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령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명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살전 5:16-18

우리가 많이 듣고 한번이상 암송했던 이 성경구절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때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수 있지?”하고 스스로에게 되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불가능한 것을 명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문맥상으로 볼 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100퍼센트 다스리시는 성령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현재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항상 기쁘게 쉬지말고”를 검색해서 찬양을 들으며 함께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오늘의 기도

1. 천국의 소망으로 성령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2. 은빛시니어를 통해서 어르신들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자라가며, 노년에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스텝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소서.
3. 정치적, 이념적, 계층적, 집단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생하는 통합의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바른 종말론적인 삶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10장

*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3장

오늘의 말씀 | 살후 1-3장

1장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현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환난 받는 자들에게 주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며,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말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고 그 위에 굳게 선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일행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거짓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만 하는 규모 없는 자들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살후 3:16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하길 원한다는 축도와 함께 편지를 마감합니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의 본성의 가장 원하는 평강과 임재에 대한 기원이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평강입니다. 현재 외적갈등(부부간, 부모자녀간, 고부간, 고용주와고용인간, 갑을간 등)과 내적갈등(내 고민, 내 욕심, 나의 연약함, 영적 싸움 등)으로 힘든 우리에게 평강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임재(동행)입니다. 간난아이와 어린아이를 홀로두지 않듯이 언제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주변에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집단,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집단 등 거짓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 현재 평강이 깨졌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강과 임재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2. 어와나 불티단, 티앤티, 트랙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3. 무속과 이단적인 사상과 사이비 종교가 이 땅에서 끊어지며, 미혹된 영혼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

찬 양

찬송가 433장

말 씬

시편 131:1-3

나누기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 떤 아이에 비유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였기에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질 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 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시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해요.

암송
구절

시편 131: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1:1)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저자와 독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7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들이 야고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1:22; 2:14; 3:18).

야고보서의 독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구조와 내용

야고보서는 그 주제를 따라서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이를테면 부한 형제와 낮은 형제, 시험과 유혹, 들음과 행함, 차별에 대한 경고, 행함없는 믿음, 언어생활, 세상과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인내와 기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2:24). 이는 마치 사도바울과 대치된 주장처럼 보이지만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공로나 행동은 무용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야고보서는 믿고 난 이후에 그에 걸맞은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노라 자만하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7장
- *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2장

오늘의 말씀 I 약 1-2장

1장은 이 책의 도입부로 책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주고 본문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과 주제들을 미리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시험에 대한 인내, 말씀을 듣고 행함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묵상할 본문 I 약 1:1-8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에 야고보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시험 당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만 남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메마른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빛어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봅시다.

*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를 깊이 묵상하고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지혜롭게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줍니다.

오늘의 기도

1.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2. 교회학교 전도대를 축복하오니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5장
*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5장

오늘의 말씀 | 약 3-5장

3장에서는 말(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통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허탄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고난 중에 서도 인내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묵상할 본문 | 약 4:8-10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시73:28).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악한 행실을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사1:16).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끝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입니다. 구별된 마음이 짐,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 *qatani*이란 단어의 어근에는 '자르다(cu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 우리 삶에 잘라내기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봅시다.

*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해 보고 그것을 기도제목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악한 행실을 버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식당봉사팀의 모든 팀원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소서.

베드로전서는 주변의 이교도적인 환경으로부터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흠어진 나그네들(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을 주는 '소망의 서신'입니다(1:3, 21; 3:15).

1. 저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열두 사도 중의 하나요,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의 하나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AD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바벨론, 5:13)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즉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된 재림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며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2. 기록목적

베드로전서는 무엇보다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에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고난 중에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겨낼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3. 구조와 내용

- 1)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 거룩한 백성(1:1-2:10)
- 2)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2:11-3:12)
- 3) 고난에 대한 교훈(3:13-4:11)
- 4) 박해 받는 성도들에 대한 권고(4:12-5:11)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같은 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나 박해와 같은 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위험성과 같은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기록목적

사도들의 의해서 전달된 전승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전승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1:12, 13, 15; 3:1, 2).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재림은 없고 심지어 미래의 심판도 없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재림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2. 구조와 특징

- 1) 인사(1:1-2)
- 2) 부르심과 택하심(1:3-21)
- 3)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2:1-22)
- 4) 그리스도의 재림(3:1-18)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25개 구절들 중에서 19개의 구절이 베드로후서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핵심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예언서들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방탕하게 살아도 무방하며 마지막 날에도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허탄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3:9).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을 믿고 더 이상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베드로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6장
*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2장

오늘의 말씀 | 벰전 1-2장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벰전 2:1-10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솔잎은 '소나무의 살아있는 잎'을 말하고, 갈잎은 '가랑잎'의 준말로, '활엽수의 마른 잎'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마4:4).

하나님의 공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2:2).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기근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암8:11). 이 메마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흔들림 없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의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산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테코팀과 조경팀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교회 내·외부의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3.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공적 신앙, 공적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0장
*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5장

오늘의 말씀 I 벰전 3-5장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고난 중에 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5장에서는 젊은이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벰전 4:12-14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딤후 3:12).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4:14).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같은 힘든 상황을 통해 오히려 우리와 친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2. 상례팀과 새하늘찬양팀을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3. 북한 동포들과 지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억압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루 같은 천 년, 천 년 같은 하루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80장
*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1-3장

오늘의 말씀 | 벵후 1-3장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며 특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삶을 멈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벵후 3:8-1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기뻐합니다. 비록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엡5:16).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뜨거운 불에 사라질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일상의 소소한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주께 드리는 삶은 지금을 드리는 삶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 이유를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3:15)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오늘 하루 1시간 단위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적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기쁨으로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문화스포츠팀의 사역을 통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진행하는 사역을 통해 몸과 마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3.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의 책명은 '쇼페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사사들',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의 기간에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1. 저자와 연대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하였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작 연대에 관하여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왕정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17:6)라는 표현은 이 책이 왕정 수립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1:21)은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B.C.1000년경; 참고. 삼하 5:6) 이전에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 목적과 배경



※ 사사시대의 배경과 무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점령하여 토지를 분배하였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이방 민족을 통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사사를 통해 하나님은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의 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자신들의 타락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 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비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줄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3. 내용과 구조

	출신 지파	대 적	숙박기간	평화기간	특 징
웃니엘 Othniel	유 다 (8.C1383-1335)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	8(년)	40(년)	갈렙의 조카 (Nephew of Caleb),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1:9-21, 3:7-11)
에 후 Ehud	베나민 (1316-1236)	모압 왕 (에글론: Eglon)	18	80	게라의 아들 (Son of Gera), 왼손잡이로 에글론을 암살함 (3:12-30)
삼 갈 Shamgar	지파 모른 (1260-1250)	필리스틴 (Philistines)	?	?	아낏의 아들 (Son of Anath), 소모는 막대기로 필리스틴을 물리침 (3:31)
드보라 Deborah	에브라임 (1216-1176)	가나안 왕 (야빈: Jabin)	20	40	여사사, 바락(Barak)과 협력, 가나안 시스라 장군 물리침 (4:4-5:31)
기드온 Gideon	므낫세 (1169-1129)	미디안	7	40	삼백명의 용사로 승리를 거둠. 만년에 '에봇'을 우상화 하고 70 명의 아들을 두어 큰 혼란을 야기시킴 (6:11-8:35)
톨 라 Tola	잇사갈 (1120-1097)			23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10:1,2)
야 일 Jair	므낫세(길르앗) (1120-1098)			22	아들 30 과 30 성읍을 됨 (10:3-5)
입 다 Jephthah	갓(길르앗) (1085-1079)	암몬	18	6	기생의 아들, 큰 승리를 얻었으나 그릇된 서원을 하여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 (11:1-12:7)
입 산 Ibzan	유다(베들레헴) (1079-1072)			7	아들 30 을 두어 그들을 위하여 타국의 30 여자를 데려오고, 딸 30 을 타국으로 시집보냄 (12:8-10)
엘 론 Elon	스불론 (1062-1055)			10	10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림 (12:11,12)
압 돈 Abdon	에브라임 (1062-1055)			8	아들 40 과 손자 30 이 70 필의 나귀를 탐 (12:13-15)
삼 손 Samson	단(1075-1055)	필리스틴	40	20	나실인, 성결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를 잘리움. 죽을 때에 수많은 필리스틴인을 죽임 (13:2-16:31)

1) 머리말 : 불완전한 정복과 배교(1:1-3:6)

- 가나안에 입성한 후 이방 민족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결과는 후에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휼과도 닿아있습니다.

2) 압제와 구원의 연속(3:7-16:31)

-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시름하고 부르짖는 회개를 하나님은 공휼의 마음으로 들어주십니다. 사사를 통한 통치는 그들에게 평안의 시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다시금 우상을 찾는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3) 맺는 말 : 종교적·도덕적 무질서(17:1-21:25)

-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무질서한 혼란의 시대를 가감없이 기록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4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오늘의 말씀 | 사 1장

1장은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특별히 유다 지파의 신실성과 지도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주저하지 않고 앞장 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창49:8-12).

묵상할 본문 | 사 1:1-7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1:2).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장(戰場)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베섹의 왕)을 만나 그를 처형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탁월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방 족속이 남아 있었고 이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도일기를 적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방송팀의 귀한 사역을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더해지게 하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찬 양

찬송가 379장

말 씀

요한일서 1:5-10

나누기

빛이 되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어둠의 일을 벗어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어둠에 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 문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귄을 가질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 도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함께해 주셔서 온 가족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을 통해 우리의 표정도 밝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모든 일에 앞서 이것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잘分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늘 기도하고 행동해요.

암 송
구 절

요한일서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5월 15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믿음의 대를 잇는 성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6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2-3장

오늘의 말씀 1 사 2-3장

2장에서 사사 시대 직전의 상황(1-5)과 사사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6-23)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부패해진 가나안 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여 불행을 자초합니다. 잔존한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시 같은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3장 서두(1-6)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을 남겨두신 이유가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게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또한 그들의 영적 순결 상태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1 사 2:6-10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의 계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은 결국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10)과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괴로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의인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지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기억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전산팀을 위하여, 교회 전산 업무를 잘 담당하여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2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4-5장

오늘의 말씀 | 사 4-5장

4장에서는 하술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과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점과 둘째, 바락이 자신의 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나아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승리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5장에서는 적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1-11절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어 12절 이하는 4장에 서술되어 있는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로서,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과는 함께 축복과 기쁨을 나누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신랄한 저주성 책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사 4:4-24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은 후 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술 왕 야빈을 통하여 20년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생활이 지속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고 바락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야빈 왕은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락은 명령대로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군대장관 시스라가 살해당하고, 이스라엘은 야빈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세 명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따라 기적과 역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모든 일에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눈앞을 가리지만 결국에는 승리가 예비 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미디어 홍보팀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고척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려지게 하소서.
3. 고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의 도성이 되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0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오늘의 말씀 | 사 6장

본장에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는 과정과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우상 타파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사 6:11-24

여호와와 사자는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 기드온을 만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일을 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가장 작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며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할 정도로 소심했던 기드온은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확신을 갖고 사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확신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능력이 한참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평강은 늘 확신으로 이어지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평강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얻은 평강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새물결팀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물결을 일으켜 교회가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3.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정국에 평안을 주시고,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온전하게 행하도록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여호와의 선택과 승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7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7-8장

오늘의 말씀 | 사 7-8장

7장에서 불과 삼백 명에 불과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을 섬멸하였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탁월한 전략도 승리에 큰 보탬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수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8장은 기드온과 삼백 용사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해했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들을 추격할 때, 요단 동쪽에 있는 성읍들(숙곳과 브누엘)은 협조 대신 조롱함으로써 징벌을 자초합니다. 이 사건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유치한 시기심(1-3)과 함께,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안한 모습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사 7:9-25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시고, 물가에서의 시험을 통해 삼백 명의 용사를 선택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압도적인 수 차이는 자칫 전의를 상실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이미 용사들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은 수의 인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듯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여호와와의 선택과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승리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스스로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충성심을 갖고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과 확신으로 믿음을 지켰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의 기도

1.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소서.
2. 선교부를 위하여, 고척교회 선교부를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역이 온 열방으로 뻗어가게 하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팀이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0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9장

오늘의 말씀 1 사 9장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추대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1 사 9:7-21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의 친족인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이 자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의 극단적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요담은 담대하게 나무 우화를 빚대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가시나무는 숨을 곳이나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본질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빚대어 말한 것입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교만은 늘 징계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 연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취소될 수는 없다”(C.S. 루이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지금의 성공과 행복이 나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혜택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나누어 봅시다.

*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2. 선교사님(파송/협력)을 위하여.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의 축복,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소서.
3.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의 진리로 다시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소서.

뜻 없는 열심이 아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60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0-11장

오늘의 말씀 I 사 10-11장

10장에서는 두 사사의 행적을 소개한 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 호소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11장은 사사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인신 제사에 뿌리를 둔 서원을 하여 그는 자신의 무남 독녀를 잃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사 11:29-40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는 더 이상 예전의 입다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하나님의 뛰어난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며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에도 입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다의 무의미한 열심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이행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과연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는가를 늘 점검하여 무의미한 열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인가를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변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뜻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새가족 양육부를 위하여, 새가족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며,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깊이 간직하게 하소서.
3.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인생의 지혜

찬 양

찬송가 384장

말 씀

전도서 7:11-14

나누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공감을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질 문

인생의 험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험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도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험통할 때나 곤고할 때에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기뻐하는 사람 혹은 슬픔에 잠긴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암 송
구 절

전도서 7:14 험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0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2-13장

오늘의 말씀 | 사 12-13장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도 그치고 사사 입다는 연수를 다하여 장사됩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 입산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 번 평화에 도취되어 악을 행하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장부터는 길게 이어지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묵상할 본문 | 사 13:8-12

소라 땅 단 지파 중 마노아의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출생할 것을 알려주며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당부합니다. 이때에 마노아는 여호와와 사자에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주시는 마음을 판단해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내 뜻과 판단을 앞세우기 보다는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2. 코로나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진리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부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시고 위정자와 국민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6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4-15장

오늘의 말씀 | 사 14-15장

삼손은 덤나에서 한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기에 부모는 걱정을 하지만 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삼손은 덤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소동을 일으키며 블레셋을 치게 되었고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사 14:1-9

삼손은 본능에 충실한 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아내를 맞아들이기도 하며 나실인임에도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삼손의 모습임에도 이방여인을 맞이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을 허락하십니다. 본능에 충실하며 어리석은 삼손이지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어리석고 우둔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며 서로를 격려해봅시다.

*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주신다는 생각을 갖는지, 걱정이 앞서는지 생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2. 주님께서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담당자는 예산을 선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3. 남북한이 위협하고 경계하는 관계를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삼손과 들릴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0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오늘의 말씀 | 사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인 이를 빌미로 삼손을 치려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엄청난 힘의 비밀을 풀 어보려고 하지만 삼손은 이를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손에 잡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 잔치할 때에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이들과 함께 죽음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사 16:23-31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갔고 마지막에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했지만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따라 살며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탐심을 뒤로 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소서.
2. 차량부 봉사자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봉사자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3. 사회 곳곳의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가 가라앉고 양보와 질서를 공유하는 건 강한 대한민국 사회되게 하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3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7-18장

오늘의 말씀 | 사 17-18장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를 끝으로 사사의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안에 대한 내용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가는 자신만의 신당이 있었고 자신들을 위하여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어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될 때에 미가는 레위인에게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 레위인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단 지파는 거류할 곳을 찾던 중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신상과 레위인을 빼앗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묵상할 본문 | 사 17:1-6

미가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대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는 마음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복 받는 것에만 열중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하나님의 의중은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이 복 받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복을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 위의 질문에 이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기도

1. 자신과 물질만을 위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태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총무부 팀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들의 사역이 교회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 약한 이들의 기댈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90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

오늘의 말씀 | 사 19장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은 아내를 달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다시 아내와 함께 에브라임으로 길을 떠납니다. 여정 중에 기브아에 들려 유숙하게 되는데 그곳 불량배들에게 아내가 몸쓸 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에 레위인은 시체를 거두어 열두 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각 사방에 보냅니다.

묵상할 본문 | 사 19:1, 22-26

사사기 19장은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첩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떠나간 첩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브라임으로 다시 데리고 올 때 엄청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유숙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로부터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련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남자가 남자와도 관계를 맺었던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를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왕이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족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감을 감사로 여기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예배부원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3.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민족의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11장

* 오늘의 말씀: 사사기 20-21장

오늘의 말씀 I 사 20-21장

19장의 일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땅이 진노하며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40만 명의 전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고 베냐민은 패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싸움으로 하여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됨을 슬퍼하고 뉘우치며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하는데, 아내가 없는 베냐민 사람들을 위하여 길르앗과 실로의 여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혼인하게 합니다.

묵상할 본문 I 사 21:25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남자와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베냐민 남자들이 혼인을 하지 못하여 후대를 잇지 못하게 되자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르앗과 실로에서 여자를 납치하여 강제로 혼인을 맺게 합니다. 길르앗의 여자들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채 혼인을 맺었어야 했으며 실로의 여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에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납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민족도 여자를 납치하여 혼인을 맺게 하는 어리석고 악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를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개인과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선한 일을 하다 손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거나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에 합당한 일이어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

1.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회 곳곳에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소서.
2. 찬양대를 섬길 수 있는 대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3.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허락주소서.

기도로 변화된 삶

찬 양

찬송가 436장

말 씬

에베소서 4:17-24

나누기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성과 열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질 문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 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해주세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보세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암 송
구 절

에베소서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월 29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1. 저자와 연대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 사사기, 룻기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고, 저작 연대 또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 목적과 배경

룻기는 비교적 평범한 이야기 속에 원대한 구속사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책입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룻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종교적·도덕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암흑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러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섭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3. 내용과 구조

1) 나오미와 룻의 귀환(1:1-1:18)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고향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신앙적 결단과 나오미를 사랑함으로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하였습니다.

2)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1:19-2:23)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과부들에 불과한 나오미와 룻의 생활이 전개됩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실하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줄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혼(3:1-3:18)

율법이며 고대 근동의 일반적 풍습이기도 한 친족과의 결혼법에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룻의 행동은 그 자신만의 행복 추구나 자신만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도 강조됩니다.

4. 룻과 보아스의 결혼 및 출산(4:1-4:22)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였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호와와 나오미에게 신실하였던 룻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됩니다. 또한 이방 여인 출신이었지만 헌신적 신앙을 가졌던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혈통을 통하여 훗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음을 명시함으로써 룻은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굳게 결심하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5장

* 오늘의 말씀: 룻기 1-2장

오늘의 말씀 | 룻기 1-2장

기근을 피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들은 모두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절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자기 밭의 인부들을 통해 사정을 듣게 된 보아스는 룻이 생계를 잘 이어가도록 인부들에게 그녀를 돕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하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의 친족임을 알게 되어 룻과 연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룻 1:6-18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남편도 잃은 마당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편은 더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고 이성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오르바는 결국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 곁에 남았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연약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현실적인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 오르바는 나오미와의 동행을 결국 포기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막혀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 오르바와 달리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결단한 룻의 결심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결심을 한 사건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굳게 결심하는 고백을 드려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시온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 헌신하는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3.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4장

* 오늘의 말씀: 룻기 3-4장

오늘의 말씀 | 룻기 3-4장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지만, 보아스는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점을 알고 기업 무를 자의 우선 순위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룻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음 날 성읍 장로들을 부르고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을 불러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 무르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넘어와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낳게 되었으며, 그 아들은 오벳이고 그 계보는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룻 4:1-12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픈 세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오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과 어머니를 믿고 섬기며 따른 룻의 순종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주가 쓰실 때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운 친족은 그의 재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주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하였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가브리엘 찬양팀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3. 지역 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서자선집사의 읽기: 록

서자선, 지우(2022)



이 책은 독서와 함께 성장해온 한 평신도 집사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독서를 통한 영적 성장에 도전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내용이 매우 재미있어 순식간에 읽게 되고, 읽다보면 저자처럼 성경과 더불어 신앙서적을 읽고 싶어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생생한 개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위대한 저자들의 주옥같은 문장들이 인용되어 있어서 한 권이 아닌 수십 또는 수백 권을 읽는 듯 한 포만감을 또한 줍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며, 내 안에 있는 균형 있는 신앙성장의 욕구를 일깨워주는 책이기에 꼭 일독을 권합니다.

인터넷 유튜브(youtube) 검색창에 '서자선'을 입력하면 옆에 사진처럼 2019년에 한 교회에서 특강('그리스도인의 독서, 독서모임은 이렇게 서자선 집사')한 영상이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대상》

1. 평신도가 독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지 전 과정을 알고 싶은 분들
2. 자신의 현재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성장의 도전을 받고 싶은 분들
3. 인용된 영장 거장들의 글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묵상해 보길 원하는 분들

《목차》

1장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질문 / 교회 / 아이들의 질문 / 새로운 고민 / 질문의 유익 / 해답의 시작 :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예배 / 설교 / 개인 묵상 / 설교 묵상 / 새로운 독서의 시작 / 기도 / 더욱 확장된 독서 / 새로운 소명

2장 책을 읽는 이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다 / 다른 생각과 만나다 / 성경 읽기 / 성도의 의무 / 올바른 지성으로의 회복 / 예배와 섬김 / 고전 : 역사적 신앙을 공유하다 / 창조 세계를 이해하다 / 성찰과 성숙 / 재능의 발견 / 취향으로서의 독서

3장 어떤 저자들의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믿음의 선배 / 박영선 / 마틴 로이드 존스 / 존 파이버 / 조나단 에드워즈 / 청교도 / 기독교 세계관 / 헤르만 바빙크 / 교리 공부 / 독서모임을 돕는 책 / 점검 / 이웃과 세상을 향한 독서

4장 독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변화를 품다 /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다 / 독서력과 지적 성장 / 정서의 안정과 회복 / 검소와 절제 / 시간을 선용하다 / 혼자 있는 시간의 힘 / 건강한 관계성 / 독서모임의 유익을 누리다 / 치유와 환대의 장으로서의 독서전도 / 기록하는 습관 / 걷기 습관

특강중인 서자선 집사 ▶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4~6월 매일묵상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특별 기고합니다.

• 최지현 집사(섬김-24)

서편 71편

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히 그분만 신뢰하길 원한다. 나와 남편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바른 본보기가 되어 어렵거나 기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이길 원한다.

하나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그때가 하나님을 바로 볼 때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늙어서도 건강한 마음 가지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편 101편

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매주 화요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날. 옆집은 수거 전날이면 항상

쓰레기를 미리 문 앞에 내놓는다. 재활용 쓰레기라 냄새는 나지 않지만, 미관상 좋지 않아 참 거슬린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이에게 옆집 얘기를 하며 그들을 헐뜯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다.

마음으로까지 그들을 미워한 죄 용서해 달라고. 별 것 아닌 것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너나 잘하라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잠언 30장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부자라면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물질을 쓰게 될는지.

1.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2. 비싼 차로 바꾸기
3. 일등석 타고 여행 가기
4. 제주도에 해변이 끝내주는 곳을 찾아 별장 짓기

이상은 내가 부자라면 해보고 싶었던 생각들의 일부이다. 아굴과 너무 비교되는 고백이라 부끄럽다. 내 안의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성경 매일찬송 매일기도 매일감사가 나에게 매일 매일이 되어야한다!!

삶 속에 녹아든 예배이야기

• 한채린 집사(기쁨-15)

우리 가족의 삶 속에 녹아든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주일 온라인예배 / 자기 전 시편23
편 읽고 기도 / 남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양하기 / 주일설교와 관련된
어린이그림성경읽기 / 영아부 엄마들
과의 화상큐티 모임

신앙이란 무엇일까? 또 예배란 무엇일까? 아이들이 생기고 어려운 것이 많아졌다. 모든 순간이 시험 같았고 당연했던 것들과는 멀어졌다. 내 신앙에 공백이 생기고 내 인성의 바닥을 마주했다. '아! 그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싶었다.

'나 정도면 열심히 믿고 있지' 자만하던 신앙에 찬물 한 바가지!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외식하는 자의 밥상 엮어버리기!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 믿지 않으면 아이들 눈에는 하나님도,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 예배의 형식(시간)을 어렵게 견뎌낼 뿐이다. 최선을 넘어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신앙이 필요하다.

골로새서 3:22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도 나의 어린이 상전님들께 말보다 삶으로 보여줘야겠다! 다짐해본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잘 해내야 하고 무언가 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틀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신앙이 자리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최근 영아부 엄마들과의 큐티모임 시간에 가정예배 본문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시고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서로 육아하며 느낀 어려움도 나누고 성경본문도 함께 연구해보고 기도하며 서로 응원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그리고 평안

함이 찾아왔다. 말씀묵상도 기도도 가벼운 일이 되었다. 이렇게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했다. 그 관계 속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움이 필요한 때이다.



사편 131:1-3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쯧 쯧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쯧 쯧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차곡차곡 쌓여가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당연하되 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한다.



지난달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표 소감문

가정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해주신 따뜻하고, 귀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이 더욱 성장하고 서로 사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유기쁨 (청년공동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유병욱, 문영교 집사 (기쁨-12), 유하영 (소년2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김용갑, 이숙진 집사 (사랑-36)

힘들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 박레아 (소년1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박에스터 (중등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 변숙영 집사 (은혜-10)

감사일기 쓰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곽채아 (유아부)

성경 동화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 곽채원 (유치부)

비록 한번이지만 온 가족이 다같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곽현재 집사 (기쁨-14)

우리 가정예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이은경 집사 (기쁨-14)

* 그 외에 실천표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신오섭, 박유니 집사(사랑-29), 정애희 권사(사랑-39), 김태연(고등부), 김하연(소년부)

* 모든 성도가 함께 가정예배를 실천합니다.

1인 가족이나 부부도 [매일묵상]의 '위드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실천표를 꼭 제출해 주세요.



새물결팀

• 팀장 김학렬 안수집사(소망-32)

새물결팀은 부서 명칭이 은밀합니다.

〈식당운영팀〉, 〈국내선교팀〉, 〈찬양팀〉처럼 부서의 목적이나 사역이 명칭에 대변 드러나질 않습니다. '새물결'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변화나 역동적인 느낌은 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역하는 부서인지, 명칭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용기에 고인 물은 용기의 모양을 띠고, 그 쓰임을 다하면 사라집니다. 행여나 용기가 깨지면 동시에 물도 형태를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물결은 다릅니다. 정해진 모습은 없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며 어딘가로 향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신앙도 용기 속 물이 아닌 물결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파도쳐 나가야 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성도가 함께 참여할 신앙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 새물결팀의 사역이자 사명(使命)이라고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새물결팀이라는 부서 명칭에 저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른 어떤 명칭보다도 심오하게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줄을 다시 씁니다. '새물결팀은 부서 명칭이 오묘합니다.'

새물결팀 섬김이들은 말이 많습니다.

신앙 캠페인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대화의 연속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없이 은혜롭고, 머리를 맞대며 사역을 논의하는 팀원들의 대화는 참깨처럼 고소합니다.

새물결팀은 올해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부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 김학렬 안수집사, 이숙연 집사, 고혜은 집사, 김민강 집사가 목요일 밤마다 기도와 이야기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회계를 맡아 소중한 예산을 챙기며 자상히 돕는 이명희 집사님의 헌신도 늘 보배롭습니다. 새물결팀이 속한 방송전산부를 이끄시는 이민우 목사님과 최성환 장로님의 기도와 격려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평소 원하고 번듯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이 늦은 밤 집에서 편하게 무장 해제하신 친근한 모습,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언제든 저희 화상 모임에 초대하겠습니다.

신앙 캠페인을 준비하며 말을 많이 할수록 부끄러운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말하러나 나부터가 그리하지 못했던 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세워가자는 캠페인 아이디어를 말할수록 정작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은 새물결팀 우리 자신임을 느낀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선 저희 새물결팀에게 감히 교회와 타인의 신앙을 변화시키라는, 감당 못 할 권한과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물결팀에 속한 자들부터 자신의 신앙을 남보다 먼저 누우치고 변화하라는 '기회'를 특혜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추가하겠습니다. **새물결팀 섬김이들은 말이 많고, 받은 복도 참 많습니다.**

해변가를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을 떠올려봅니다. 밀려온 물결에 신발 젖지 않으려고 마른 모래 위만 걸으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신발은 벗어 던지고, 바닷물에 맨발 간지럽히며 손 꼭 잡고 걸어야 운치 있고 사랑도 깊어집니다. 새물결팀의 신앙 캠페인 물결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발 젖는 게 성가셔 점잖게 연인들 구경만 하실 분은 물론 없겠지요. 신앙의 새 물결에 과감히 맨발 적시며 함께 손잡고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살롱!

“일본”



• 강 장 식, 이 문 경 선교사 (파송 선교사, 동경 시나와교회)

お元気ですか?

(오겜끼데스까, 건강하십니까?)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섬기시느냐 고생많으십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나와교회 교우들 1/3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었거나 아직 투병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공적 지원이 너무 약해서, 저희와 교우들이 서로를 돌보게 되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친밀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긴장과 돌봄이 이어지는 2년 동안 선교사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는 분들 덕분에 알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를 언급할 때 항상 '1%도 되지 않는'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데요. 그 수지도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를 모두 포함한 기독교(Christianity) 인구비율입니다. 개신교(Protestant) 인구비율은 약 0.2%로 '극소수 종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믿음의 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거룩한 씨로 살아남아 있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같은 일본교회들이 생명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빛을 발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90년대 유학생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을 때, 작은 일본 교회를 찾아갔던 날이 깊은 여운으로 제겐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어린이 찬송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라는 곡을 일본인 성도들이 한국어로 불러 주었습니다. 한국어 가사 위에 일본어 발음기호를 표기해 놓고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2절 가사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 될까? 우리들 다 함께 생각해봐요. 쉬운 일 힘든 일 같이 나누고 크게나 작거나 서로 믿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웃.”

이 찬양은 재일한국인들이 인권차별로 취업도 할 수 없고 여러모로 심한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 강도 만난 이웃으로 보고 그들 편에서 서서 함께하기로 한 일본교회들이 정한 주제찬양입니다. 외로움과 피곤에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환대는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일본은 차갑고 경계와 차별의 벽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일본은 언제나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하고 따뜻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 교회 안에서는 구원과 성장의 역사가, 이웃들에게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만날 수 있는 천국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중단되고 대면 집회가 제한되고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랑과 기도의 끈, 예배와 선교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중단되었다가 좋은 영어교사의 협력으로 4월부터 재개하고, 가스펠과이어는 온라인과 대면 모임을 통해 찬양과 만남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며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빈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식당"은 구청의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협력으로 매년 90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찾는 맛 좋고 사랑 많은 급식봉사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주민들과 거리감이 좁아지고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5년간 계속되고 있는 활동을 지켜보던 지역 유지들이 이제는 찾아와 협력해 주는 것도 작은 기적중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문화선교 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교회출입구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선교는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살갓



을 대하며 나누는 복음과 천국사랑을 작은 화면에 담으려니 충분치 못합니다.

이 부자유와 충분하지 못함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따뜻한 믿음의 이웃을 그립게 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일본 소식을 나누며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신 고척교회 모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자유로운 활동과 제한 없는 만남과 예배가 시작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담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코로나와 여러 위험 가운데 안전하고 강건하며, 믿음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고척교회와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소식

5월

교회

-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 1일(주일)
- 월삭새벽기도회 | 2일(월)
- 어버이주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 8일(주일)
- 교사주일, 희망의 복지재단 헌신예배 | 15일(주일)
- 청년주일, 성년축복식 및 청년공동체 헌신예배 | 29일(주일)

예배시간 안내

GO CHEOK,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천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5월 가정예배 실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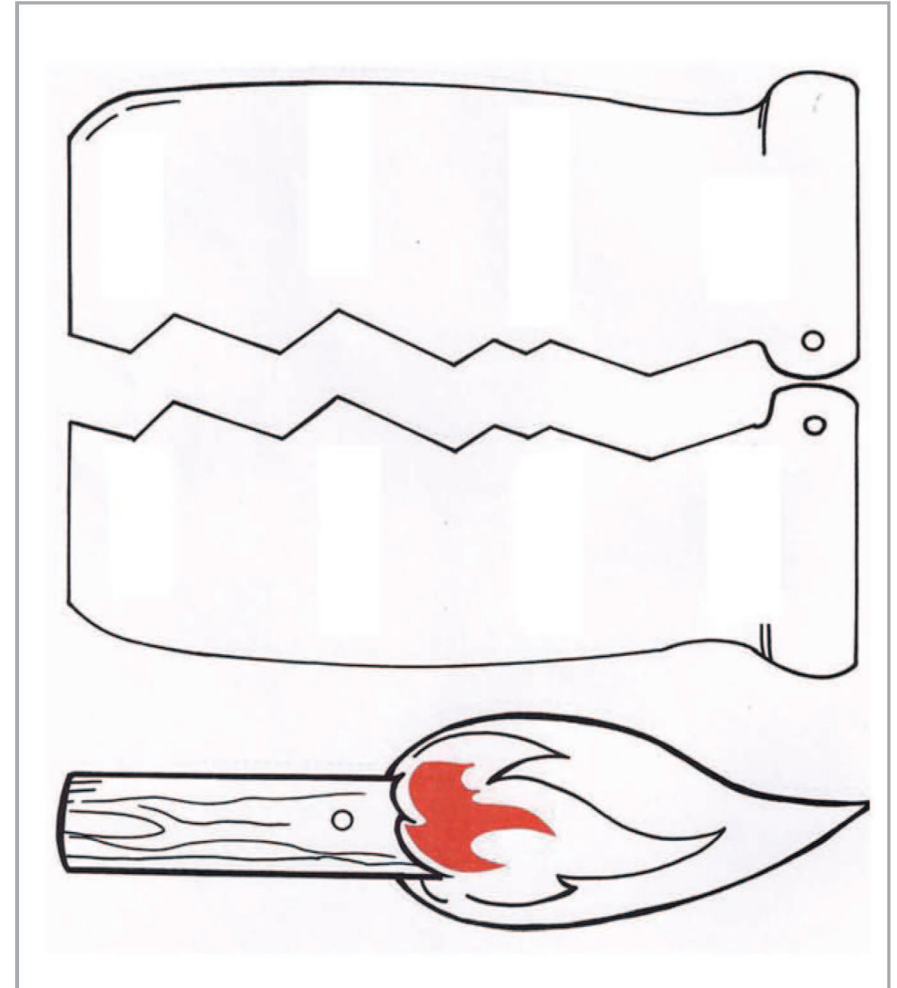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주 간	실 천 (0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기드온 햇불 항아리 만들기

사사기 7:15-18의 말씀을 읽고 햇불 항아리를 만들어보세요.



항아리와 햇불에 색칠을 하고 핀으로 연결할 부분에 구멍을 내서 왼쪽 그림처럼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에베소서 4:24

중생한 것을 따라

의인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신실한 바니

새 사람을 입으라.

전도서 7:14

복음화한 나에게는 기뻐하고 온고한 나에게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들을

하나같이 병행하게 하시

사람이 그의 자라 임을 누리

게하려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요한일서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이니 곧 **광나눔은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시편 131:3

이스라엘에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호와를 바라지아다